조선과 일본에 사는 시인 김시종*
– 장편시집『니이가타』에 표현된 '재일'의 의미

김 계 자
(고려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재일코리언 김시종의 장편시집『니이가타』의 표현을 고찰해 식민 이후와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재일'의 의미를 생각해본 것이다.『니이가타』는 1959년에 니이가타 항에서 재일코리언이 북한으로 귀국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주 4·3사건 이후 정부 당국에 쫓겨 1949년에 일본으로 건너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의 삶을 살고 있는 김시종의 '재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표명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시집이다.

김시종은 스스로를 재일 2세로 정위하고 일본사회 속에서 현실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왔다. 그는 남북 분단의 현장이며 38도 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니이가타에서 조국에서는 넘을 수 없었던 분단을 넘는 상상을 한다. 이는 재일의 삶을 살고 있기에 가능한 공간 확장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니이가타』는 '재일'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정체성의 불안을 느끼는 네거티브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을 모두 포괄하며 이들을 새로운 의미로 관련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과 분단의 어두운 기억 속에서 살던 자아를 깨워 새로운 공간의 상상력을 펼침으로써 남북을 총칭하는 '조선'과 일본을 아우르는 지점에서 재일을 사는 의미를 찾고자 한 시인의 적극적 의지 표명을 읽어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2-A00019)

www.kci.go.kr

수 있다.

주제어 : 니아가타, 상상, 변형, 공간 확장, ‘재일’을 사는 의미

Ⅰ. 서론

본 논문은 재일코리언[1] 김시종의 『장편시집 니이가타(長篇詩集 新潟)』(1970)에 표현된 시적 표현을 통해, 식민 이후와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재일(在日)’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 것이다.

김시종(金時鐘, 1929.12.8.～) 시인은 2015년에 내놓은 자전적 에세이 『조선과 일본에 살다-재일시인 김시종 자전(朝鮮と日本に生きる―濟州道から猪飼野へ)』(岩波新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봉인해둔 기억을 조심스럽게 들춰내고 있다. 김시종은 함경도 원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전라도 광주에서 지내며 소위 ‘황국소년’으로 길러졌다. 이러한 그가 17세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에 맞이한 해방은 그를 당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자신의 의식의 밑바탕을 만들어낸 언어는 일본어였고, 일본의 노래를 부르며 7·5조의 일본적 운율에 길들여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조선어로 말하고 생각하라고 한들 서정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일본식 리듬감이 쉽게 전환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식민지’, ‘나의 해방’, 그리고 ‘나의 일본어’와 같이 김시종이 기억 속에서 토해내는 ‘일본’은 자신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배어

1) 본고에서는 북한에 적을 두고 있는 재일조선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인, 그리고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재일코리언’이라는 명칭을 쓴다. 또 김석범과 같이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을 거부하고 해방 이전의 조선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넓은 의미의 ‘재일조선인’도 ‘재일코리언’으로 포괄해, ‘재일조선인’이라는 개념이 현재 재일코리언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덧붙여,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개념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역사적 문맥을 담고 있으나, 편견과 차별의 멸칭으로서의 의미 또한 들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용을 지양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용 등의 문맥상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일조선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둔다.

www.kci.go.kr

나오는 응어리진 회한의 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억은 1945년 여름을 기점(起點)으로 소환된다.

>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역시 생애를 가른, 그렇다기보다 하늘이 뒤집힌 여름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억 속에는 생각해본 적조차 없는 조국이 갑자기 소생했다는 8월 15일의, 저 산천을 뒤흔들던 함성이 있고, 쫓겨서 숨어지낸 4·3사건의, 후끈한 열기에 물크러진 시체의 참기 어려운 썩은내가 있고, 가까스로 도착한 오사카의, 공복에 허덕이던 땡볕이 있습니다.
>
> 동족상잔이라 불리는 조선전쟁도 후덥지근한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피로 얼룩진 고난으로 내몰리던 고향을 등지고 일본으로 도망친 자의 부채로서 민족단체의 상임활동가가 되어 삼반투쟁(반미, 반요시다, 반이승만)에 분주했던 것 역시 한창 젊은 시절 한여름의 기억입니다.[2)]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김시종이 식민 이후와 재일의 삶을 걸어온 생애에는 늘 여름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은 해방되던 해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방'에 엄습당한 나"였다는 시인의 말대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자신의 의식을 형성한 일본어는 "어둠 속에 갇힌 말"이 되어버리고, 식민지의 멍에를 푼 해방은 자신을 지배하던 "말과의 격투를 새롭게 부과한 날"이 되었다. 이후 해방기의 혼란과 제주 4·3사건을 겪으며 남조선노동당의 당원이었던 김시종은 탄압을 피해 1949년 6월에 일본으로 밀항해 오사카의 이카이노에 정착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는 '재일'의 삶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이 김시종의 시 창작의 기점에는 조선에서 맞이한 해방의 여름이 놓여 있는데, 그는 자신의 시 창작의 기점에 있는 또 다른 하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나를 묶고 있는 운명의 끈은 당연히 내가 자라난 고유의 문화권인 조선으로부터 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한창 늘려야 할 나이였던 내게

2) 김시종 저, 『조선과 일본에 살다-재일시인 김시종 자전』, 윤여일 옮김, 돌베개, 2016, 17쪽.

www.kci.go.kr

> 묶인 일본이라는 나라 역시 또 하나의 기점이 되어 나의 사념 안으로 운명의 끈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양쪽 끈에 얽혀, 자신의 존재 공간을 포개고 있는 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만이 '재일'의 실존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돌려보내진 나도 못지않게 '재일'의 실존을 양성하고 있는 한 명인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이 나의 '재일'임을 깨닫습니다. 일본에서 정주한다는 것의 의미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을 파고들도록 이끈 '재일을 산다'라는 명제는, 이리하여 나에게 들어앉았습니다.[3]

김시종이 말하는 '조선'은 남과 북을 통틀어 일컫는 총칭으로, 분단 이전의 혹은 분단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위의 인용에서 주목할 점은 김시종이 자신의 시 창작의 기점에 조선의 해방이라는 축 외에, '일본'을 또 하나의 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시종은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결국 일본으로 돌려보내진 존재라는 점에서 자신도 '재일'의 실존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조선과 일본 "양쪽 끈에 얽혀, 자신의 존재 공간을 포개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재일'을 조선과 일본의 두 공간을 포개고 있는 존재로 정위(定位)하는 것은 종래 양자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존재로 '재일'을 파악한 것과는 분명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선과 일본의 사이에 끼인 존재가 아니라, 양쪽을 아울러 포괄하는 위치에 '재일'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인식은 '재일을 산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일(在日)'이라는 말에는 '일본에 산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재일을 산다'고 하면 '산다'가 중복되는 셈이다. 따라서 '재일을 산다'고 할 때의 '산다'는 '일본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고들어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김시종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지점에서 재일의 실존적 삶을 살아내려고 한 의지를 표현한 첫 시집 『지평선(地平線)』(1955)에서부터 표출된다.[4]

---

3) 김시종, 앞의 글, 234쪽. 밑줄 인용자.
4) 김계자, 「김시종 시의 공간성 표현과 '재일'의 근거」, 『동악어문학』 67집, 2016.5,

www.kci.go.kr

그렇다면 김시종이 1945년 여름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재일로서의 자신의 삶의 기점에 놓고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분단의 현장에서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고 있는『장편시집 니이가타』(이하,『니이가타』)를 통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니이가타』의 배경 및 구성

『니이가타』(構造社)는 1970년에 출판된 김시종의 세 번째 시집이다. 1955년에 첫 시집『지평선』이 출간된 데 이어, 1957년에 두 번째 시집『일본풍토기(日本風土記)』(国文社)가 나온 뒤 13년이 지난 뒤에 출간된 것이다.『일본풍토기』에서『니이가타』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에는 사정이 있었다. 일본공산당이 지도하던 재일본조선통일민주주의통일전선(민전)이 1955년에 조선인총연합회(총련)로 바뀌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김일성이 신격화되고 민족 주체성이 강조되는 등 사상적 규제가 심해졌다. 또 작품을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써야 한다는 지시 속에, 일본어로 창작하고 있던 김시종은 창작 언어를 둘러싸고 조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시종은 문학을 통해 오사카의 조선인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1953년 2월에 써클 시지(詩誌)『진달래(ヂンダレ)』를 창간해 활동하고 있었다. 써클운동은 1950년대 일본 전체에서 활발했던 문화운동으로, 전문적인 문인이 아닌 아마추어가 창작 활동을 통해 운동의 기반을 넓혀가도록 하는 소비에트의 문화정책 방법에서 나온 것으로,『진달래』도 오사카의 재일조선인들이 시 창작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일본사회에 표출했다. 그런데 김시종과 총련 조직과의 갈등 속에서 결국『진달래』는 1958년 10월에 제20호를 끝으로 해산되고 만다. 김시종은「장님과 뱀의 억지문답(盲と蛇の押し問答)」(『진달래』18호, 1957.7)이라는 논고를 통해 재일 세대의 독자성을 제거하려는 총련의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의식의 동일화 요구에 맞섰으나, 나쁜

185쪽.

www.kci.go.kr

사상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비판과 지탄에 시달려야 했다. 김시종은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 돌이켜보면 『진달래』는 내가 일본에서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준 시지였습니다. 경위는 뒤에서 말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민전을 대신한 조선총련이 북조선 일변도로 방향을 잡자마자 사상악(思想惡)의 본보기로 『진달래』를 비판합니다. 이것은 곧 김시종에 대한 조직적 비판이기도 했는데, 만약 그 비판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가장 먼저 북조선으로 돌아갔을 사람입니다. 그 『진달래』 덕분에 정인, 양석일, 고형천 같은 생애의 벗과도 만날 수 있었고, '재일을 산다'라는, 일본에서 살아간다는 명제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한곳'을 같이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실존이야말로 남북대립의 벽을 일상차원에서 넘어서는 민족융화를 향한 실질적인 통일의 장이라는 것이 '재일을 산다'는 내 명제의 요지입니다.[5]

김시종이 현재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위치에서 재일의 실존적 의미를 찾고자 자신을 재일 2세대로 규정하고[6], 재일 세대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은 첫 시집 『지평선』에서부터 잘 드러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지도부가 북한 조직으로 바뀐 이후의 획일화된 동질화 요구에 순응할 수 없었고, 조직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도 보듯이, 김시종은 남북대립을 넘어 민족융화의 장에 '재일'의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창작은 재일의 독자성이 담보되는 공간이어야 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규탄 받고 언어표현도 조선어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그의 자율적인 표현행위는 가로막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애초에 세 번째 시집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풍토기Ⅱ』의 원고가 분실되고 출판이 중단되는 등, 창작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집『니이가타』는 1959년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시집의 대부분을 완성해 놓고도 출간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김시종은 『니이가타』 출간을 총련 조직에 자문하지

5) 김시종, 앞의 글, 262쪽.
6) 金時鐘, 「第二世文学論―若き朝鮮詩人の痛み―」, 『現代詩』, 1958.6.

www.kci.go.kr

않고 자체적으로 세상에 내놓게 된다.

1959년 12월에 북한으로 귀국하는 첫 배가 니이가타 항에서 출항할 때, 조직의 비판을 받고 있던 김시종은 귀국선에 탈 수도 없었고 일본에 발이 묶인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가 확립되었고, 재일 사회에서도 총련의 지도하에 북한이 사회주의 조국으로 추앙받아 북한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59년 12월 14일 니이가타 항에서 귀국선이 첫 출항한 이래 본격적인 북송 귀국 사업이 시작되어, 1984년까지 9만 3,340명이 북한으로 귀국했다.[7] 북한으로의 집단 귀국은 그야말로 '꿈'이었던 것이다. 김시종도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북한 조직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던 때여서 북한으로의 귀국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혼자서라도 일본에서 38도선을 넘고 싶다는 발상이 시 창작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분단선인 38도선은 동으로 늘리면 일본 니이가타시의 북쪽을 지납니다. 지리적으로는 니이가타를 북으로 빠져나오면 '38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궁극적인 물음이 38도선을 넘은 나에게 남습니다. 모든 표현행위가 가로막힌 나로서는 그저 일본에 남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재일'의 의미를 스스로 밝혀가야만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말하자면 장편시집『니이가타』는 살아남았던 일본에서 다시금 일본어에 매달려 지내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재일을 산다'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던 시집이기도 합니다.[8]

남북 분단을 막는 데 뜻을 같이 한 조국에서의 4·3의 좌절과 밀항,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북한 조직과의 갈등 속에서 분단은 김시종이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러나 김시종은 발상의 전환을 한다. 38도선의 동쪽 연장선상에 위치한 니이가타에서 북한으로 출항하는 귀국선을 바라보며 혼자서라도 분단을 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본에 남아 일본어로 표현하며

7) 윤건차,『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외 옮김, 한겨레출판, 2016, 404쪽.
8) 김시종, 앞의 글, 269쪽.

www.kci.go.kr

‘재일’을 살아가는 의미임을 시인은 자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니이가타』에는 1950년대 말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김시종의 단상(斷想)이 단속적(斷續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이 얽히는 일제강점기부터 남북 분단의 갈등이 고조되는 1950년대 말의 북한 귀국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기억들을 시집에 담고 있다.

『니이가타』는 전체 3부 구성으로, 각 부는 다시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간기의 노래(雁木のうた)」는 4·3사건 이후에 일본에 건너온 때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니이가타의 귀국센터에 이르는 도정을 그리고 있다. 제2부 「해명 속을(海鳴りのなかを)」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으로 조선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간 역사부터 해방 후에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이나 4·3사건 등 바다울음 속을 떠돌고 있는 시인 자신과 조선 민족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다. 제3부 「위도가 보인다(緯度が見える)」는 니이가타에서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 남을 것을 결심하는 시적 화자의 심경이 그려져 있다.

이상의 개략에서 알 수 있듯이, 『니이가타』는 식민과 분단의 시대를 지나 ‘재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조선 민족의 장대한 역사가 서사적으로 전개되는 장편 시집이다. 그리고 이 시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다. 시적 화자 개인을 포함한 ‘재일’을 구성하는 민중이다. ‘재일’이라는 집단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가 이야기로 표출되는 공간이며, 이미지로 상상되는 표현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지렁이’가 ‘한 사내’로 변형(metamorphose)되어 인간으로 부활하는 극(劇)이 일어난다. 따라서 시의 내용은 ‘재일’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존재론적인 지평으로 전개된다.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Ⅲ. 일본에서 조국을 넘는 상상력

『니이가타』의 시 세계는 실체화를 부정하고 상징과 비유의 표현을 통해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시적 화자는

www.kci.go.kr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노래한다. 제1부「간기의 노래」의 모두(冒頭) 부분을 살펴보자.

> 눈에 비치는 / 길을 / 길이라고 / 결정해서는 안 된다. / 아무도 모른 채 / 사람들이 내디진 / 일대를 / 길이라 / 불러서는 안 된다. / 바다에 놓인 / 다리를 / 상상하자. / 지저(地底)를 관통한 / 갱도를 / 생각하자. / 의사(意思)와 의사가 / 맞물려 / 천체마저도 잇는 / 로켓 / 마하 공간에 / 길을 / 올리자. / 인간의 존경과 / 지혜의 화(和)가 / 빈틈없이 짜 넣어진 / 역사(歷史)에만 / 우리들의 길을/ 열어두자. /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1-1, 21-22쪽)[9]
>
> 目に映る / 通りを / 道と / 決めてはならない。/ 誰知らず / 踏まれてできた / 筋を / 道と / 呼ぶべきではない。/ 海にかかる / 橋を / 想像しよう。/ 地底をつらぬく / 坑道を / 考えよう。/ ロケットの / マッハの空間に / 道を / 上げよう。/ 人間の尊厳と / 知恵の和が / がっちり組みこまれた / 歴史にだけ / ぼくらの道は / あけておこう。/ そこを通らねばならない。

'간기(雁木)'는 적설량이 많은 니이가타 현 등에서 처마에 차양을 달아 길을 덮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 위에서 보면 처마 모양이 기러기의 행렬처럼 보여 붙여진 말이다. 니이가타 항에서 출항하는 귀국선 행렬에 기러기 떼가 연이어 날고 있는 듯한 간기의 길을 중첩시켜, 시적 화자가 놓인 처지와 상반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러기의 이미지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김시종은 4·3사건으로 정부 당국에 쫓겨 망명한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또 북한 조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으로 가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눈에 비치는 길", 즉 기존의 통상적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과거의 길은 "일제(日帝)에 의해 / 고역(苦役)을 강요당했던 / 그 길"이고, "내 과거에 / 길은 없었다"고 말하고

9)『김시종 장편시집 니이가타』, 김시종, 곽형덕 역, 글누림, 2014, 21-22쪽. 이하,『니이가타』본문 인용은 장절 번호와 쪽수만 표기한다. 그리고 상징적인 시어가 많기 때문에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어 원문도 병기한다.

www.kci.go.kr

있다. 이에 반해, 새로운 길은 '역사'를 포함한 길이면서 "바다에 놓인 / 다리"이며 "지저를 관통한 / 갱도", "마하 공간에 / 길"을 올려 공간을 횡단하는 상상의 길이다. '다리'와 '갱도'라는 시어는 두 곳을 연결해 이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다나 어둠에 가로막힌 공간을 이어 건너편에 닿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오세종은 '길'이 한편에서는 '나'의 고유성을 빼앗아 다른 것으로 변신시키는 폭력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길'에 대해 물음으로써 마땅히 있어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이중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길'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김시종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변신'이라고 논했다.[10] 오세종이 말하는 폭력의 상징으로서의 '길'이 과거의 역사가 걸어온 통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길'이 바로 상상을 통해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변신'이라고 논하는 점은 흥미로운 지적이나, 본고에서는 '변신'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해석보다 '니이가타'라는 장소성에 주목한다. 가로막힌 공간을 잇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되는 시적 화자의 '상상'이 집결되고 있는 곳이 바로 시적 화자가 서 있는 니이가타이기 때문이다. '니이가타'라는 장소성은 공간 확장의 상상을 보여주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길이 막힌 '나'는 야행성 동물로 변신해 "백주의 활보보다 / 날뜀을 간직한 / 원야(原野)가 / 보여주는 밤의 / 배회"를 한다. 이와 같이 정해진 길을 부정하고 새로운 상상의 길을 찾는 화자의 의식은 인위적이지 않은 원시림 속에 묻혀있던 기억과 조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시종은 세상에 나아가려고 한 첫 시집『지평선』의「서(序)」에서 밤을 희구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밤'은 김시종의 시 창작의 기점부터 나온 키워드이다. 내면화된 일본어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태양(천황)을 부정하며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 도달하고자 '밤'이라는 장치를 불러들였다.[11]『니이가타』에서도 '밤'은 '백

10) 吳世宗,「リズムと抒情の詩学：金時鐘『長篇詩集新潟』の詩的言語を中心に」, 一橋大学博士論文, 2009, 165쪽.

11) 김계자,「재일조선인 김시종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 조선』, 역락, 2015, 196-204쪽.

www.kci.go.kr

주’를 능가하는 거친 생명력을 가진 원시림의 공간과 어우러져 약동감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듯 『니이가타』의 시세계는 거칠고 광활한 공간으로 약동하는 새로운 길을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 나는 결국 / 지렁이가 되었다. / 밝은 빛에 대한 / 두려움은 / 태양마저도 / 질식해 / 그늘에 사는 자로 바꿔놓았다. / 그 후 / 나는 / 길을 갖지 못했다. / (중략) / 나는 선복(船腹)에 삼켜져 / 일본으로 낚아 올려졌다. / 병마에 허덕이는 / 고향이 / 배겨 낼 수 없어 게워낸 / 하나의 토사물로 / 일본 모래에 / 숨어들었다. / 나는 / 이 땅을 모른다. / 하지만 / 나는 / 이 나라에서 길러진 / 지렁이다. / 지렁이의 습성을 / 길들여준 / 최초의 / 나라다. / 이 땅에서야말로 / 내 / 인간부활은 /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아니 /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1-1, 30-33쪽)
>
> ぼくはとうとう / みみずとなった。/ 明りへの / おののきは / 太陽までを / いみきらう / 日陰者に作りかえたのだ。/ それ以来 / ぼくは / 道をもたない。/（中略）/ ぼくは船腹に呑まれて / 日本へ釣りあげられた。/ 病魔にあえぐ / 故郷が / いたたまれずにもどした / 嘔吐物の一つとして / 日本の砂に / もぐりこんだ。/ ぼくは / この地を知らない。/ しかし / ぼくは / この国にはぐくまれた / みみずだ。/ みみずの習性を / 仕込んでくれた / 最初の / 国だ。/ この地でこそ / ぼくの / 人間復活は / かなえられねばならない。/ いや / とげられねばならない。

어둠 속에서 서식하는 ‘지렁이’는 시적 화자인 ‘나’의 메타포로, 4·3사건 후에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이래 음지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시인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렁이’로 변신한 ‘나’는 다시 인간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땅’, 즉 현재 살고 있는 일본에서 이를 달성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시종이 자신을 재일 2세로 규정하고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재일의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조국에서 쫓겨 흘러들어와 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자의 인간 부활은 어떻게 가능한가?

www.kci.go.kr

오로지 / 동북(東北)을 향해서 / 지표(地表)를 기어 다녔다. / 아크등을 / 무서워하며 / 지층의 두께에 / 울었던 / 숙명의 위도(緯度)를 / 나는 / 이 나라에서 넘는 거다. / 자기 주박(呪縛)의 / 밧줄 끝이 늘어진 / 원점을 바라며 / 빈모질(貧毛質) 동체에 피를 번지게 하고 / 몸뚱이채로 / 광감세포(光感細胞)의 말살을 건 / 환형(環形)운동을 / 개시했다.(1-1, 33쪽)

ひたすら / アーク灯に / おびえ / 地層の厚みに / 泣いた / 宿命の緯度を / ぼくは / この国で越えるのだ。/ 自己呪縛の / 綱のはしがたれている / 原点を求めて / 貧毛質の胴体に血をにじませ / 体ごと / 光感細胞の抹殺をかけた / 環形運動を / 開始した。

"숙명의 위도"는 38도선의 남북분단을 가리킨다. 전술했듯이, 김시종은 남북을 찢고 있는 분단선인 38도선을 동쪽으로 연장하면 일본 니이가타 시의 북쪽을 통과한다고 하면서 본국에서는 넘을 없었던 남북분단을 일본에서 넘는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시적 화자는 분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니이가타에서 분단을 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걸려있는 주박을 푸는 길이며, 습지에 서식하는 미물에서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통상의 길로는 분단을 넘을 수 없다. 남북 분단의 위도 위에 서 있는 귀국센터야말로 분단의 상징이며, 이곳에서 북으로 귀국하는 모습은 분단을 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국에서는 넘을 수 없는 분단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자신의 부(負)의 측면이 오히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가능성으로서 부상한다. 호소미 가즈유키는 "'지렁이'는 촉각에만 의지하여 땅속 깊은 곳을 파고들며 나아가는 '습성'으로 인해, 표층(表層)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월경을 홀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에서 일본이 강요한 '지렁이'라는 부(負)의 실존은 바로 그 일본에서 저 위도를 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때, 오히려 압도적인 우위성으로 전환된다"고 하고 있다.[12)]

12) 호소미 가즈유키,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 어문학사, 114쪽.

www.kci.go.kr

그런데 '지렁이'라는 메타포는 중간에 '거머리'로 표상되기도 하는데, 습지에 서식하는 네거티브한 존재로 표상되는 '나'가 비단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처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굴종을 강요했던 일본에서 다시 망명자의 삶을 살아가야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렁이'의 습성이 우위성으로 전환된다기보다, '월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일'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의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식민과 분단은 이어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망명자의 삶을 살게 된 시적 화자가 인식의 발상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호소미가 말하는 습성 같은 것이 아니라, 일본 니이가타에 서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공간 상상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1부 첫머리에서 새로운 길의 상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월경'이라기보다 '확장'된 공간의 상상력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괄하는 위치에서 '재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제1부의 말미에 "바다를 / 도려내야만 / 길이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길의 상상은 심해에 묻어둔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층에 묻어둔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그동안 침묵해온 과거의 자신과 만나는 과정이며, 여전히 술회가 쉽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도정이기도 하다.

Ⅳ. 기억을 말하는 것

김시종이 자신의 체험, 특히 4·3사건에 관련된 기억을 자전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로, 극히 최근의 일이다. 시집『니이가타』에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상징화된 표현과 분절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당국에 쫓겨 밀항선을 타고 도일한 그로서는 해방기의 일을 평이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니이가타』를 집필해 세상에 내놓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까

www.kci.go.kr

지의 시기는 한국전쟁을 비롯해 남북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는 다시 재일 사회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시 조선적을 갖고 있던 김시종이 사상과 표현을 둘러싸고 북한 조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자의 술회가 용이하지 않았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전술한 김시종의 자전은 일제강점기의 유년시절부터 1998년 10월에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49년만에 제주도를 찾아오기까지의 기억을 술회하고 있는데, 유년시절의 이야기에 비하면 해방 이후 일본에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은 분량이나 서술의 심급에 있어 제한되고 주저하는 심리를 읽을 수 있다. 필생의 작업으로 4·3사건을 써온 김석범과 달리, 김시종은 언어를 압도하는 현실 앞에서의 무력감과 망명자로서의 삶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쉽게 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김시종은 광주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의 단상을 엮은 『광주시편(光州詩片)』(1983)에 대해 "4·3사건과의 균형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다고 하면서, "권력의 횡포를 규탄하는 것이 주안이 아니라 그 '사건'과 맞서는 자신의, 생각 밑바닥의 아픔을 바라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3)]

김시종에게 4·3사건의 기억은 의식의 심연에 묻어둔 자신의 아픈 과거와 만나는 것이고, 그 과거는 일제시대에 황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다 맞이한 해방의 당혹감에서 시작되어 망명과 재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기억은 해방 직후와 4·3사건, 그리고 이후의 일들이 중층적으로 얽혀 상기된다.[14)]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배어나면서도 기억의 내용은 상징적이고 표현이 분절되어 있는 데다,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기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풀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징과 비유, 그리고 분절화된 표현을 통해서밖에 표출시킬 수 없는 시적 화자의 굴절된 내면과 상상에 오히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고

13) 김석범·김시종 저, 문경수 편,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이경원·오정은 역,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157쪽.

14) 박광현은 집합적인 복수의 기억들과 김시종 개인의 기억을 '니가타'라는 기호가 매개해 두 가지의 서사가 병행하며 복잡성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광현, 「귀국사업과 '니가타'-재일조선인의 문학지리」, 『동악어문학』 67집, 2016.5., 220쪽).

www.kci.go.kr

에서는 관련 사실과의 대조 고찰보다 표현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15)]

김시종의 기억은 늘 1945년 8월의 시점에서 소환된다.

> 내가 / 가라앉은 / 환영의 / 팔월을 / 밝혀내자. / 때로 / 인간은 / 죄업 때문에 / 원시(原始)를 / 강요할 때가 있다. / 혈거를 / 기어 나오는데 / 오천년을 들인 / 인간이 / 더욱 깊숙이 / 혈거를 파야만 하는 / 시대를 / 산다. / 개미의 / 군락을 / 잘라서 떠낸 것과 같은 / 우리들이 / 징용(徵用)이라는 방주[箱船]에 실려 현해탄(玄海灘)으로 운반된 것은 / 일본 그 자체가 / 혈거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초열지옥(焦熱地獄) 전 해였다.(2-1, 87-88쪽)
>
> ぼくが沈んだ / 幻の / 八月を / 明そう。/ 時として / 人間は / 罪業のために / 原始を / 強いることがある。/ 穴ぐらを / 這い出るのに / 五千年をかけた / 人間が / 更に深く / 穴ぐらを掘らねばならない / 時代を / 生きる。/ 蟻の / 群落を / 切りとったような / 徵用という箱船に積まれて玄海灘を運ばれたのは / 日本そのものが / 穴居生活を余儀なくされていた焦熱地獄の前の年であった。

"환영의 팔월"은 해방의 기쁨도 순간이고 바로 이어진 4·3사건 속에서 너무도 짧게 덧없이 끝나버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곰과 범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환웅이 이르는 대로 동굴에 들어가 혈거 속에서 원시의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했듯이, 강제징용으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끌려와 전화(戰禍) 속에서 혈거 생활을 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시적 화자는 침잠해있는 8월의 의미를 깨우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더욱 어둡고 습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15) 『니이가타』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에 대해 김시종의 생애와 증언을 토대로 주석을 붙인 아사미 요코(浅見洋子)의 논문「金時鐘の言葉と思想：注釈的読解の試み」(大阪府立大学博士論文, 2013)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사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징적 표현을 이해하기에는 제한된 자료인 경우가 많고 그 해석이 필자의 의견과 다른 경우가 많아 본고에서는 참고는 하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했다.

www.kci.go.kr

그것이 바로 “가라앉은 환영의 팔월을 밝혀내”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다.

> 8월은 / 갑자기 / 빛났던 것이다. / 아무런 / 전조도 없이 / 해방은 / 조급히 서두르는 / 수맥처럼 / 동굴을 씻었다. / 사람이 / 물결이 돼 / 설레는 마음이 / 먼 가향(家鄕)을 향해 / 물가를 / 채웠다. / 미칠 것 같이 느껴지는 / 고향을 / 나눠 갖고 / 자기 의지로 / 건넌 적이 없는 / 바다를 / 빼앗겼던 날들로 / 되돌아간다.(2-1, 90-91쪽)
>
> 八月は / 突然と / 光ったのだ。/ なんの / 前触れもなく / 解放は / せかれる / 水脈のように / 洞窟を洗った。/ 人が / 流れとなり / はやる心が / 遠い家郷目ざして / 渚を / 埋めた。/ 狂おしいまでの / 故郷を / 分かちもち / 自己の意志で / 渡ったことのない / 海を / 奪われた日日へ / 立ち帰る。

김시종은 해방을 조선에서 맞이했기 때문에 해방 후에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체험을 한 것은 아니다. 즉, 위의 내용은 개인의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징용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민족의 빼앗긴 시간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혹은 자신의 의지에 반(反)해 바다를 건너온 의식 속에 철저한 황국소년이고자 했던 지나간 날들에 대한 탈취를 기도하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해방을 한반도에서 맞이한 김시종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과 일본에서 맞이한 재일코리언 집단의 공적인 기억이 ‘팔월’의 시점에서 모아진다. ‘팔월’은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으로 전이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기제(機制)인 것이다.

1945년 8월은 재일코리언의 원점이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은 이 시점에서 거슬러 오르고, 해방 후의 일은 이 시점에서 상기된다. 기억 환기의 기점(起點)인 것이다. 김시종이 시집『잃어버린 계절(失くした季節)』(2010)에서 계절을 여름에서 시작해 가을, 겨울, 봄의 순서로 사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도 기점은 역시 ‘팔월’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니이가타』에서도 ‘팔월’을 기점으로 시인 자신의 유년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4·3사건,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억의 원점에 1945년 여름이 있다. 그리고 ‘해명(海鳴) 속

www.kci.go.kr

을’이라는 2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8월의 기억 한가운데에는 바다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우키시마마루 사건의 성난 민중의 기억이 있다.

> 그것이 / 가령 / 환영(幻影)의 순례[遍路]라 하여도 / 가로막을 수 없는 / 조류(潮流)가 / 오미나토(大湊)를 / 떠났다. / 염열(炎熱)에 / 흔들리는 / 열풍 속을 / 낙지 항아리를 흡입해 다가오는 / 낙지처럼 / 시각을 / 갖지 못한 / 흡반(吸盤)이 / 오로지 / 어머니의 땅을 / 만지작거렸다. / 막다른 골목길인 / 마이즈루만(舞鶴湾)을 / 엎드려 기어 / 완전히 / 아지랑이로 / 뒤틀린 / 우키시마마루(浮島丸)가 / 어슴새벽. / 밤의 / 아지랑이가 돼 / 불타 버렸다. / 오십 물 길 / 해저에 / 끌어당겨진 / 내 / 고향이 / 폭파된 / 팔월과 함께 / 지금도 / 남색 / 바다에 / 웅크린 채로 있다.(2-1, 92-93쪽)
>
> それが / たとえ / 幻の遍路であろうと / さえぎりようのない / 潮流が / 大湊を / 出た。/ 炎熱に / ゆらぐ / 熱風のなかを / 蛸壷へ吸い寄る / 章魚のように / 視覚をもたぬ / 吸盤が / 一途に / 母の地を / まさぐった。/ 袋小路の / 舞鶴湾を這いずり / すっかり / 陽炎に / ひずんだ / 浮島丸が / 未明。/ 夜の / かげろうとなって / 燃えつきたのだ。/ 五十尋の / 海底に / 手繰りこまれた / ぼくの / 帰郷が / 爆破された / 八月とともに / 今も / るり色の / 海に / うずくまったままだ。

우키시마마루 사건은 강제징용 등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와 그 가족들 3,735명을 태우고 1945년 8월 22일에 아오모리(青森) 현 오미나토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귀국선이 보급을 위해 마이즈루만에 배를 세웠다가 8월 24일 오후 5시 경에 폭침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무연고자로 처리되거나 인양되지 못하고 심해로 유실되었다. 시인은 ‘오미나토’나 ‘마이즈루만’, ‘우키시마마루’와 같이 고유명을 써서 당시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6]

16) 조은애는 우키시마마루가 지닌 상징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시 전체를 온전히 독해하기 힘들 정도로 『니이가타』의 시어들이 사건 및 그 발단지였던 노동현장을 연상시키는 것들, 예를 들어 폭발, 구멍, 어둠, 바닷속, 시체, 유골, 배의 이미지로 가득하다고 논하고 있다(조은애, 「죽음을 기억하는 언어-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과 재일조선인, 혹은 전후 일본의 어떤 삶들」, 『상허학보』 47, 2016.6., 58쪽).

www.kci.go.kr

그런데 폭침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후인데, 왜 “어슴새벽” “밤의 아지랑이가 돼 불타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키시마마루가 바다에 묻힌 집단의 기억은 4·3사건 때 바다에 묻힌 사람들과, 이후 일본으로 밀항할 때 바다의 어둠에 묻은 김시종 자신의 기억이 겹쳐있다. 집단의 기억이 개인의 기억으로, 그리고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으로 전이되는 곳에 바다의 어둠이 내려 앉아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올 때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몰래 밀항 준비를 해준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린다.

> 가늠할 수 없는 / 바닥에 / 웅크린 / 아버지의 / 소재(所在)에 / 바다와 / 융합된 / 밤이 / 조용히 / 사다리를 / 내린다. / 소년의 기억에 / 출항은 / 언제나 / 불길한 것이었다. / 모든 것은 / 돌아오지 / 않는 / 유목(流木)이다.(2-2, 95-96쪽)
>
> 測りようのない / 底へに / うずくまる / 父の / 所在へ / 海と / 溶けあった / 夜が / しずかに / 梯子を / 下ろす。/ 少年の記憶に / 船出は / いつも / 不吉だった。/ すべては / 帰ることを / 知らない / 流木なのだ。

노령의 부모를 뒤로 하고 해방 후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귀환자들과 밀항선에 올라탄 화자의 기억 속에 바다는 고난과 공포의 어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키시마마루의 희생자와 4·3사건으로 학살된 시체가 가라앉아 있는 곳이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불길한 공간의 이미지가 바다의 어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을 새벽과 밤의 어둠으로 표현한 것은 시간상의 의미보다 바다의 심연에 묻혀 있는 진실의 실체를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밤의 / 장막에 / 에워싸여 / 세상은 / 이미 / 하나의 / 바다다(夜の / とばりに包まれた / 世界は / もう / ひとつの / 海だ)”(2-2, 100-101쪽)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밤의 바다에 떠오르는 시체는 우키시마마루 사건과 4·3사건이 중첩되는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들을 살릴 길을 찾은 아버지의 환영이 덮고 있다. 김석범은 김시종의『니이가타』에 그려진 4·3사건 묘사

www.kci.go.kr

에 대해 “뒤틀린 지맥과 같이 우울한 음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17] 김석범이 직접 눈앞에서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에 기초해서 4·3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써낼 수 있었던 반면에, 김시종은 직접 사건에 관련되어 민중 학살의 진상을 목도했기 때문에 언어를 압도하는 현실의 무게가 뒤틀린 형태로밖에 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심해의 어둠에 묻혀 있는 억압된 기억의 봉인을 풀 때라고 시인은 말한다.

> 이만 번의 밤과 / 날에 걸쳐 / 모든 것은 / 지금 / 이야기돼야 한다. / 하늘과 땅의 / 앙다문 입술에 뒤얽힌 바람이 / 이슥한 밤에 누설한 / 중얼댐을.(3-1, 131-132쪽)
>
> 二万の夜と / 日をかけて / すべては今語られるべきだ。/ 天と地の / かたくなな唇にもつれた風が / 夜更けにもらした / つぶやきを。

역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간 사람들의 침묵을 강요당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이보다 더 애절하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문장은 없을 것이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다울음의 진실을 복원하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호소는 시적 화자가 자신에게 되묻고 있는 물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억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아직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다시 밤의 어둠을 불러들이고 마는 망설임과 주저가 한편에 남아 있다. 이러한 시인의 망설임과 주저가 시적 화자의 중층적인 내면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

Ⅴ. ‘재일을 산다’는 것의 의미

전술했듯이, 『니이가타』의 제3부 ‘위도가 보인다’는 니이가타에서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은 일본에 머무르는, 즉 ‘재

17) 김석범·김시종 저, 문경수 편, 위의 글, 121쪽.

www.kci.go.kr

일’할 것을 결심하는 시적화자의 심경을 그리고 있다. ‘재일’이 사실로서 일본에 머무르는 의미라면, ‘재일을 산다’는 것은 재일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말이다. 일본경찰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라는 심문을 받고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출생은 북선(北鮮)이고 / 자란 곳은 남선(南鮮)이다. / 한국은 싫고 / 조선은 좋다. / 일본에 온 것은 / 그저 우연한 일이었다. / 요컨대 한국에서 온 밀항선은 /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해서 / 지금 북선으로 가고 싶지 않다. / 한국에서 / 홀어머니가 / 미라 상태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심지어 / 심지어 / 나는 아직 / 순도 높은 공화국 공민으로 탈바꿈하지 못했다--(3-2, 148-149쪽)
>
> 生まれは北鮮で / 育ちは南鮮だ。/ 韓国はきらいで / 朝鮮が好きだ。/ 日本へきたのは / ほんの偶然の出来事なんだ。/ つまり韓国からのヤミ船は / 日本向けしかなかったからだ。/ といって / 北朝鮮へも今あ行きたかあないんだ。/ 韓国で / たった一人の母が / ミイラのまま待っているからだ。/ それにもまして / それにもまして / 俺はまだ / 純度の共和国公民になりきってないんだ―

‘북선’이나 ‘남선’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차별어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18], 남과 북을 합쳐 ‘조선’이라는 통칭으로 부르기 위해 차용된 말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과 ‘북조선’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어느 한쪽인 “한국은 싫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으로 가고 싶”다고도 하지 않는다. ‘북(조)선’에 가는 것을 ‘돌아간다(帰る)’가 아니라 ‘간다(行く)’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18)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은 여러 명칭으로 구획되었다. 남북으로 크게 나누어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우가 보통인데, 1920년대가 되면 좀 더 세분화된다. 즉, 경상도와 전라도는 ‘남선’, 황해도와 평안도는 ‘서선(西鮮)’, 강원도 북쪽이나 함경도는 ‘북선’으로 불렀고, 경성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간 지점을 일컫는 ‘중선(中鮮)’이라는 명칭도 있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함경선 부설과 더불어 확장된 제국의 이미지를 표상하기 위해 ‘북선’ 관련 담론이 빈출한다. 김시종은 함경도 원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출생은 ‘북선’이고 자란 곳은 ‘남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www.kci.go.kr

있는 것으로 봐도 '북(조)선'은 회귀해 돌아갈 조국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요컨대, '나'는 남북을 아우르는 총칭으로서의 '조선'이 좋다고 하면서 남북을 동시에 시야에 넣고 있는 구도이다. 시적 화자가 현재 서 있는 니이가타라는 위치가 바로 남북을 동시에 부감하는 지점인 것이다.

> 지평에 깃든 / 하나의 / 바람을 위해 / 많은 노래가 울리고 있다. / 서로를 탐하는 / 금속의 / 화합처럼 / 개펄을 / 그득 채우는 / 밀물이 있다. / 돌 하나의 / 목마름 위에 / 천 개의 / 파도가 / 허물어진다.(3-4, 169-170쪽)
> 地平にこもる / ひとつの / 願いのために / 多くの歌が鳴っている。 / 求めあう / 金属の / 化合のように / 干潟を / 満ちる / 潮がある。 / 一つの石の / 渇きのうえに / 千もの波が / くずれているのだ

니이가타는 김시종 자신이 강조하고 있듯이 남북 분단의 38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곳으로, 귀국선이 떠나고 있는 동시대적인 상황에서 봐도 남북 분단의 현장인 셈이다. 동시에, 귀국선을 타려는 사람과 배웅하는 사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여 분단을 넘고자 하는 소망이 천 개의 파도가 되어 공명(共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남북 분단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분단을 넘고자 하는 이중의 의미가 '니이가타'에 담겨 있는 것이다.

> 번데기를 꿈꿨던 / 지렁이의 입정(入定)이 / 한밤중. / 매미 허물에 틀어박히기 시작한다. / 쌀쌀한 응시에 / 둘러싸여 / 스며드는 체액이 다 마를 때까지 / 멀리서 반짝이는 / 눈부심에 / 몸을 비튼다. / 너무나도 / 동떨어진 소생이 / 골목길 뒤편의 / 새둥우리 상자에 넘쳐난다.(3-4, 176-177쪽)
> 蛹を夢みた / みみずの入定が / 夜半。 / 蝉のぬけがらにこもりはじめる。 / ひややかな凝視に / くるまれて / にじむ体液がかわききるまで / 遠くに / きらめく / 眩しさに / 身をよじる。 / あまりにも / かかわりのない蘇生が / 露地うらの巣箱にありすぎるのだ。

'지렁이'에서 탈피해 인간 부활을 바라는 시적 화자의 '꿈'이 비로소 소생의 조짐을 보이는 장면이다. 그런데 사실 지렁이는 빈모류에 속하는 동물군으로, 곤충류에서 발견되는 변태를 겪지 않는다. '지렁이'에서 인간으로의 부활

www.kci.go.kr

은 인식론상의 전환인 것이다.

> 니이가타에 쏟아지는 / 햇볕이 있다. / 바람[風]이 있다. / 산더미 같은 / 눈에 폐쇄된 계절의 / 두절되기 쉬운 길이 있다. / (중략) / 해구(海溝)에서 기어 올라온 / 균열이 / 궁벽한 / 니이가타 / 시에 / 나를 멈춰 세운다. / 불길한 위도는 / 금강산 벼랑 끝에서 끊어져 있기에 / 이것은 / 아무도 모른다. / 나를 빠져나간 / 모든 것이 떠났다. / 망망히 번지는 바다를 / 한 사내가 / 걷고 있다.(3-4, 178쪽)
>
> 新潟にそそぐ / 陽がある。/ 風がある。/ 堆く / 雪に閉ざされる季節の / と絶えがちな道がある。/ （中略） / 海溝を這い上がった / 亀裂が / 鄙びた / 新潟の / 市に / ぼくを止どめる。/ 忌わしい緯度は / 金剛山の崖っぷちで切れているので / このことは / 誰も知らない。/ ぼくを抜け出た。/ すべてが去った。/ 茫洋とひろがる海を / 一人の男が歩いている。

위의 인용은 이 장편시의 마지막 장면으로, '지렁이'에서 탈피한 '한 사내'가 니이가타에 홀로 남아 걷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존재의 변형과 '재일'의 결심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선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해방 후에 일본으로 건너와 재일 2세대임을 자처하며 의식적으로 존재론적 변형을 꾀한 김시종 시인의 실존적인 재일의 삶이 압축적으로 잘 나타난 장면이다.

햇볕과 바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해구나 균열도 있는 "불길한 위도"의 니이가타에 '나'는 서서 '재일'의 삶을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길한 위도"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불길함은 긴장과 갈등을 수반하지만 욕망의 꿈틀거림을 나타내며, 따라서 생에 대한 비상을 암시한다. 남북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 일본에 남을 것을 결심한 한 남자가 홀로 걷고 있는 모습은 남과 북,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시적 화자가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북의 한반도와 일본을 포괄적으로 부감하는 시좌(視座)에 '재일'을 자리매김하고, '재일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www.kci.go.kr

이들 관계 속에서 되물어온 시인 김시종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Ⅵ. 결론

이상에서 김시종의 장편시집『니이가타』를 살펴보았다. 제주 4·3사건 이후 정부 당국에 쫓겨 1949년에 일본으로 건너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의 삶을 살고 있는 김시종이 재일의 삶을 사는 것에 부여하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 표명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시집이다.

김시종은 스스로를 재일 2세로 정위하고 일본사회 속에서 현실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이 시작된 1959년 니이가타에서 귀국선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은 조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망향의 노래가 아니다. 남북 분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니이가타에서 조국에서는 넘을 수 없었던 분단을 넘는 상상을 하고 있다. 이는 재일의 삶을 살고 있기에 가능한 공간 확장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니이가타』는 '재일'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정체성의 불안을 느끼는 네거티브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을 모두 포괄하며 이들을 새로운 의미로 관련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과 분단의 어두운 기억 속에서 살던 자아를 깨워 새로운 공간의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전술한 김시종의 자전 제명대로 총칭으로서의 '조선'과 일본을 동시에 살아가는 재일을 사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김석범·김시종 저, 문경수 편,『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이경원·오정은

www.kci.go.kr

역,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김시종,『김시종 장편시집 니이가타』, 곽형덕 역, 글누림, 2014.
김시종 저, 윤여일 옮김,『조선과 일본에 살다-재일시인 김시종 자전』, 돌베개, 2016.
金時鐘,「第二世文学論―若き朝鮮詩人の痛み―」,『現代詩』, 1958.6.

김계자,「김시종 시의 공간성 표현과 '재일'의 근거」,『동악어문학』67집, 2016.5.
_____,「재일조선인 김시종의 밤을 기다리는 노래」,『근대 일본문단과 식민지 조선』, 역락, 2015.
박광현,「귀국사업과 '니가타'-재일조선인의 문학지리」,『동악어문학』67집, 2016.5.
윤건차,『자이니치의 정신사』, 박진우 외 옮김, 한겨레출판, 2016.
조은애,「죽음을 기억하는 언어-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과 재일조선인, 혹은 전후 일본의 어떤 삶들」,『상허학보』47, 2016.6.
호소미 가즈유키,『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 어문학사, 2013.
浅見洋子,「金時鐘の言葉と思想：注釈的読解の試み」, 大阪府立大学博士論文, 2013.
吳世宗,「リズムと抒情の詩学：金時鐘『長篇詩集新潟』の詩的言語を中心に」, 一橋大学博士論文, 2009.

www.kci.go.kr

❖ ABSTRACT

The Poet Kim Shi-Jong living in both Joseon and Japan: the Meaning of ‘Zainichi’ Expressed in Epic Poem *Niigata*

Kim, Gae-Ja

This article considers the meaning of 'Zainichi (在日)' expressed in epic poem *Niigata* (1970) written by Korean-Japanese poet Kim Shi Jong. Kim sets two points in his creation of poetry. One is summer of liberation released from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n 1945. The other is Japan where he lives as a Korean-Japanese. These two points have made him think about the meaning of living in post-colonial era and the national division of Korea, his home country. His thought like this is well expressed in his epic *Niigata*.

Niigata was written in 1959 when the ship returning to North Korea departed from Niigata of Japan. However, Kim couldn't return to his home country at that time. He stowed away from South Korea to Japan in 1949. He participated in antigovernment activities occurred in Jeju Island to block the national divi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so-called 4·3 incident. Besides, he was having conflict with the organization of North Korea at that time because it required a doctrinaire belief and creation in Korean. Kim was writing poems in Japanese and pursued the life of existence as a Korean-Japanese. Therefore, he decided to remain in Japan instead of returning to North Korea. Of course, he could not return to South Korea because he was a refugee.

Kim imagined in Niigata, the place located in an extension of the 38th parallel and the spot of national division. He could not cross the division line when he was in his home country, but he could do it in Niigata through imagination. The life as a Korean-Japanese makes it possible. 'Zainichi', which means living in Japan, has been recognized as a worse situation compared to living in Korea. However, Kim changed his way of thinking. Zainichi can embrace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This is the very reason why he lives there as a Korean-Japanese. His thought like this is well expressed by symbolic representations and metamorphose as well as the imagination of spatial extension.

www.kci.go.kr

Key Words
Niigata, imagination, metamorphose, spatial extension, the meaning of Zainich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

www.kci.go.kr